國政指標
新韓國 創造
깨끗한 政府
튼튼한 經濟
건강한 社会
통일된 祖國

국정신문

1994년 3월 7일
월요일
週刊 〈非賣品〉

發行人 吳隣煥 · 編輯人 李敬在 · 發行處 公報處 政府刊行物製作所 / 우편번호 110-021 서울 鍾路區 付岩洞 182-1 / 전화(02) 391-1027, 395-1031 · FAX 391-1034

實質·多元的 협력관계 구축

金泳三대통령 訪日·訪中의 意義

24~30일 공식방문

金泳三대통령 내외분은 오는 3월24일부터 30일까지 일본과 중국을 국빈자격으로 공식 방문한다.

金대통령은 일본 방문기간중 아키히토(明仁)日皇을 면담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일본 총리와 2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중국방문기간중에는 江澤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上海 임시정부 청사를 시찰하고 北京大學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관련기사2면〉

金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 개편과 亜·太지역협력의 확대에 발맞추어 우리와 역사적, 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日·中 양국과의 실질적이고 다원적인 우호협력관계의 구축을 도모할 것이다.

금번 訪日은 신정부 출범후 최초의 공식방문으로서, 작년 11월 호소카와 총리의 慶州 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새로운 차원의 우호협력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안정된 韓·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 寄稿

韓 昇洲
〈외무부장관〉

韓·日 양국정상은 신정부 출범후 경주 및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서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93년 8월 호소카와 정부 출범시, 94년 1월 일본 정치개혁법안 성립시 그리고 94년 2월에 있은 日·美 정상회담 개최후 등 3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金대통령, '태평양시대' 海軍역할 강조 金泳三대통령은 4일 오후 鎭海해군사관학교 제48기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선진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 태평양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하고 "우리軍의 신세대로서 개혁에 앞장서 신뢰받는 해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電送]

無限경쟁시대 국가競爭力 제고 이바지

東北亜안정·번영위한 새질서 확립 主導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금번 訪日은 다가오는 21세기 亜·太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적 동반자관계의 확립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金대통령의 訪中은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시애틀 韓·中 정상회담에서 金대통령을 초청하고 또한 금년 1월 친서를 통해 편리한 시기에 訪中해 주도록 초청한데 따른 것이다.

양국 정상간 신뢰증진

江주석은 동 친서에서 한반도 및 亜·太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다짐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金대통령은 금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국익과 실리를 위한 '세일즈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訪中은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있는 곳이면 격식을 탈피, 어디든지 방문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金대통령이 금번 일본과 중국을 연쇄방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접국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韓·日, 韓·中 양국간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인접국과 21세기를 향한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관계의 다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탈냉전이후 경제화시대를 앞서가는 실리위주의 적극적인 경제 정상외교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제2, 3위의 교역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경제, 통상,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심화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는 일본의 제4위 교역상대국으로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93년 対日수출 1백16억불, 対日수입 2백억불로 교역액이 3백16억불에 달하고 있으나, 무역적자는 92년 79억불에서 93년 85억불로 증가하여 무역불균형의 해소가 요청되고 있다.

韓日간 무역불균형 해소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에 원활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수평적 분업이 진전됨으로써,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통상관계가 확립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韓·中 관계개선후 중국도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우리는 중국의 제6위 교역상대국으로 크게 부상했다.

〈2면에 계속〉

'한국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 한창 〈4·5면〉

알 림

국정신문 PC 通信서비스 개시

국정신문은 이달부터 '천리안' '하이텔' '에이텔' 등 3대 PC통신망으로 본보記事의 통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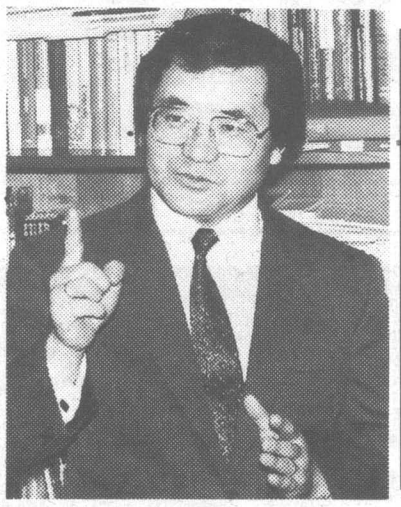
국정뉴스 주요시책·정책해설·국정여론·공직사회·통계자료 등으로 구성된 국정신문 통신서비스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리안'(데이타통신)은 주요목차의 뉴스/날씨/스포츠로 접속한 다음 뉴스 36항의 '국정신문'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이텔'(한국PC통신)은 목차의 뉴스/인물에서 뉴스 15항의 '정부소식지' 항목을 찾고 ▲'에이텔'(포스서브)의 경우는 목차의 뉴스에서 뉴스 7항의 '국정신문'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国政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국정신문의 통신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신문

韓日·韓中관계의 懸案과 課題

전문가에 듣는다



申熙錫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韓·日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불행한 과거사를 씻고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오는 24일 시작되는 金泳三대통령의 訪日에 대해 申熙錫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韓·日정상회담은 21세기 亜·太시대를 주도하고 東北亜평화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1문1답 내용 요약.

- 韓·日관계에서 당면과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 정치·외교적으로는 北核문제, 日·北韓간 수교에 대비한 대응책, 과거사 청산, 경제적 측면으로는 관세및 비관세장벽완화 등 무역불균형 시정, 기술이전 문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韓·日문화교류 이외에도 중장기적 해결과제인 在日한국인 법적지위, 사할린동포 귀환문제 등이 남아있다.

- 북한 核문제관련 어떤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는가?

▲ 北核은 이미 한반도 死活이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事案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東北亜세력균형을 위해서라도 核에 관한 한 韓·日양국의 외교적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앞으로 급진전될 日·北韓간 모든 교섭과정 공개 등 韓·日양국간 외교적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 貿易불균형 시정과 기술이전문제 등 경제분야는?

▲지난해부터 対日貿易적자가 급상승하고 있다. 엔貨강세와 맞물린 반도체·기계류 등의 원자재수입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韓·日 新경제협력기구'를 통한 과학기술의 공유문제 등 '水平분업' 문제를 현실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국기업 제3국 공동진출, 대규모 투자, 일본 건설시장 참여 등도 현재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日本대중문화개방시 우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 韓·日문화교류는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무조건 터부시하려드는 경향이 있다.

양국의 지식인 학술교류와 나아가서는 청소년·대학생 교류 등을 통한 良質의 문화를 단계적 선택적 점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의 질과 수준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한 생각은?

▲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사죄문제를 韓·日간 가장 큰 외교문제로, 분쟁으로까지 번지곤 했다. 그러나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국간 인식제고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이번 회담이 갖는 전체적 의미는?

▲ 脫냉전이후 東北亜평화를 주도해 나갈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서 선린우호협조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외교영역의 돌파구가 될 APEC구성원으로서 두나라 외교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30년만에 출범한 文民정부의 실체와 모습을 일본에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位相을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全宣珠 기자〉

亜·太시대 동반자관계 확립시급

均衡·互惠的인 통상관계 구축돼야

日本

인터뷰

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金泳三대통령의 中国방문은 韓中 양국이 단순교역상대에서 서해안 개발 및 黃海경제권 개발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진일보하고 또 한반도 문제해결,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모색 등 상호 공동관심사를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하게 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朴斗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金泳三대통령의 訪中의의를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이번 韓·中 정상회담은 北韓과 中国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 지도자들간의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1문1답 내용 요약.

- 金泳三대통령 訪中에 거는 기대효과는?

▲ 韓·中수교이후 양국간의 관계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급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안보의 非경제적 영역에서의 저조한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金대통령의 訪中은 바로 韓·中간 나타난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韓·中간 불균형 구조개선의 환경여건은 형성돼 가고 있는지?

▲ 그렇다. 韓·中수교로 인해 손상되었던 中国과 北韓의 관계가 최근에 와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결국 中国과 北韓의 관계회복이라는 것이 韓·中간 정치·군사·안보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발전을 촉진시켜 양국간 불균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 韓·中 정상회담시 北核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 것인가?

▲ 北核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므로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IAEA의 核사찰 문제에 대해 北韓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데는 中国의 역할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韓·中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 지도자간의 공동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北韓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경제협력 논의는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는가?

▲ 양국간 2重과세 방지협정의 서명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韓中경제협력이 단순교역단계를 떠나 실질적 산업협력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 南北韓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 南北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北核문제 등 한반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金대통령은 중국 지도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西海岸개발과 관련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겠는가?

▲ 중장기적으로 中国의 경제발전은 亜·太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도경제발전 성과와 자국의 현대화를 결합시키는 데서 기본방향을 찾고 있다.

이러한 中国 경제발전의 東進化추세와 우리의 서해안 개발이라는 西進化추세가 연결되고 서해안 개발 현실화에 중국의 협력이 대전제가 된다고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黃海경제권 개발에 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기대된다.

〈具校永기자〉

黃海경제권 개발이 공동과제

정치·군사 등 協경제영역 관계개선 필요

中國

韓昇洲외무장관 특별기고

〈1면에서 계속〉

"國益위해 어디든 방문" 대통령 강한 의지 확인

93년의 경우 対中수출 51억불, 対中수입 40억불로 총 교역액이 91억불에 달함으로써 전년대비 42%의 빠른 증가를 보였다.

또한 금번 방문에서 양국은 산업기술협력의 확대를 위해 자동차, 전전자교환기(TDX), 항공분야 등에서의 협력강화 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하고 이를 통해 경제, 통상분야에서의 실질협력관계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셋째, 금번 방문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南北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주변국가와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확고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金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혁·개방의 세계사적 조류에 동참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日中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넷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東北亜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가 이에 대비하여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질서 개편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의 인접국과의 긴밀한 협의는 탈냉전이후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동북아지역 질서를 확립해 가는데 있어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地域·세계문제 공동대처

마지막으로 日中 양국과의 관계 강화는 亜·太지역 협력의 확대를 위한 우리의 域内 적극적 역할 행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亜·太시대를 선도하는 외교역량을 배양하고 우루과이라운드이후 국제경제분야에서의 인접국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인접국간에 국경을 넘어서는 지역문제와 범세계적 문제에 관하여 공동대처해 가는 긴밀한 협의체제의 기반조성을 가져 올 것이다.

金대통령의 訪日은 합리성과 경제논리에 입각한 실질협력관계의 증진을 통하여 모범적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金대통령의 訪中은 상호 교류와 실질협력 확대를 통해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차원높은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文民정부 출범 1년…각 부처 改革 추진성과

'國民권익증진' 法令정비

정무장관(제1)실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제도의 개혁·보완작업을 측면에서 지원 ▲개혁이념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신문·

정치 개혁측면 지원

방송 인터뷰 등 홍보활동 ▲국회와 행정부간의 성실한 교량역할 수행 ▲주요정책 및 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도록 각부처와 협조 ▲당·정간의 정책조정기능 내실화 ▲제 실무사례 연구 발표회 월2회 개최 -특별 복무감찰 실시('93.4~6월중 12회 실시) ▲적극적 법령 홍보 -TV 및 라디오 신문 통한 법령홍보 -'새법령소식'지 발간·배포

국가보훈처

▲臨政선열 5위 유해봉환, 4·19의거 재평가로 민족 정통성 확립 ▲해외선열 묘소 발굴(손병헌 선생 등 10위) ▲독립유공자 3백86명 발굴 포상 ▲독립운동 관련 문헌 8종 약 10만부 발간 보급 ▲4·19묘지 성역화 사업 착공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차별 인상계획 확정 ▲부산 보훈병원 증설 및

報勳가족 주택지원

대전보훈병원 건립계획 확정 ▲무주택보훈가족 4천3백여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등 주택지원 ▲노령화에 따른 복지·휴양시설 건립 착수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로 자긍심 함양 ▲고엽제 피해자 및 참전군인 지원법령 제정 ▲기업체 보훈가족 의무고용기준 완화로 경쟁력 제고

女性 차별 시정·臨政선열 5位 유해 봉환

야당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정부와 건전한 시민운동단체간의 협조창구 역할 적극 수행 ▲재야세력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심도있는 정책대안 연구 의뢰

정무장관(제2)실

▲성폭력 특별법 제정('93.1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특례 규정 ▲남녀 고용평등 강화 -여행원제 폐지('94.4) 제2금융기관, 대기업 등 취업규칙 개선 ▲상속세법 개정('93.12) -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액 확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기능강화 -여성정책 관련 부처간의 조정기능 강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

성폭력 특별법 제정

사관리상 차별시정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시달 ▲여성분야 국제활동 강화 -UN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 진출(임기:'94~'97) (유엔 여성분야에의 의사결정 권한행사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전국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개최('93.12.3)

법 제 처

▲법령정비 실무작업추진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법령정비 -국민의 권익증진 위한 제도 확대 ▲국무총리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기간 단축 ▲법제자료 활용 및 법령상담 편의 제고 -법제처 도서운영규정 개정(일반인에 법제 자료실 개방) -全電子교환기 설치 ▲자율사정 추진 -'윗물맑기 운동' 전개 -법

◇ 정부는 국민건강危害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 유통기한을 명시토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金泳三대통령, 전국 市·道 연두순시

전라북도(2월28일)

▲세계를 향한 국제화 추진 -道·市·郡에 지역특성에 맞는 국제관련 업무부서 설치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설치 -재외교민 중 '명예행정관'을 위촉, 국제교류 요원으로 활용

▲UR대응 농정시책 강화 -농어촌 투자사업비 대폭 확대('93 5천5백24억원→'94 7천4백76억원) -전북미 '일등쌀' 생산확대 -마을단위 기계화 전업농 육성(1천4백41호) -고소득 작목에 대한 農·學·官 연계 새영농기법 개발 보급

▲지역경제의 활력화 -지역산품해외시장 수출지원 및 고향산품 사주기운동 전개 -2개 국가공단·4개 지방공단 기업유치 적극 추진 -개인서비스 및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6%이내로 책임 관리

◇대통령 지시사항

▲ 서해안 시대를 맞아 새만금 간척사업과 군장 산업기지, 전주 과학단지 등 지역개발을 활발히 이뤄야 함.

▲ 농어촌 특별세로 매년 1조5천억원 이상을 농촌개발에 투입할 것임.

▲ 97년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제 주 도(5일)

▲ 수출농업으로의 획기적 전환 -일본직항로 개설 -韓·日해협연안 7개 市·道·縣간 농수산물 직교역 사업 추진

▲ 관광산업의 내실있는 발전 -전천후 휴양 관광기반 확대 -계절별 특색있는 관광행사 및 상품개발 -'94 한국 방문의 해' 홍보등 각종행사 추진 -관광민속관, 해변공연장 등 야간 관광 개발

▲ 종합개발계획 추진('94~2001)

▲ 관광특구 지정 -관광사업의 규제완화 -관광부문 민간투자(1조3천억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대통령 지시사항

▲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제주관광을 새롭게 진흥하고 세계적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함.

▲ '제주 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함.

全北米「일등쌀」생산 專業農 육성 全北 濟州 전천후 휴양지 확대·야간관광 개발

소비자 감시·申告체제 강화

생활改革 현장 5

국민건강 危害식품 각 洞사무소에 주부 衛生모니터요원 배치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국산 인삼농축액 제품과 수입중국산인삼에서 人体에 해로운 농약이 허용치보다 최고 16倍를 초과해 검출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市場개방으로 인한 수입식품의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海外식품정보나 인력·장비 등 검사능력의 부족은 국민건강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분유에서 사료용 귀리가 발견되는 것을 비롯, 빵 소세지 우유 등 유통기한이 훨씬 경과한 것을 버젓이 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실정.

지난해 11월경 어린이 비스켓에서 벌레가 나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했다는 주부 윤순조씨(34·경기도 파주군)는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나오는 정도는 흔한 일"이라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제조일·유통기한 명시 철저

이처럼 주변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 異物質 발견사례는 많지만 이를 적절하게 보상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묵인해 버린다는 것이 많은 소비자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危害식품 근절을 위해 제조일자 표시식품의 확대를 추진해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판매 등 전과정에 대해선 3월과 8월중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두부 햄 우유 등 20가지 일상식품을 중점관리대상식품으로 선정, 이들 식품에 대해 2·3월 7·8월중에 시도별로 품목별 5종류이상씩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총1만건이상 수거 검사를 실시, 그 결과 기준치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 제조업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방부제 초과사용 식품 안먹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관리를 강화 검역소의 검사장비를 올해까지 완전 보강하고 검사 전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輸入品 녹색신고제 도입

이밖에도 식품수입자가 수입농산물 재배 보관 운송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을 수입시 신고토록 하는 '녹색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각 구청에만 운영했던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각 동사무소에 까지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주부 위생모니터요원을 서울시에 5백21명 위촉, 각동에 1명씩 배치하여 소비자신고체제를 강화했다.

보사부 위생관리과 한관계자는 "좋은 식품을 안심하고 먹기위해서는 행정력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스스로가 항상 감시자가 되어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全宣珠기자〉

'94 한국방문의 해… '손님맞이

親切·서비스 강화등 汎국민

'한국방문의 해' 석달째, 외국손님맞이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난 2개월간 외래관광객 입국 및 관광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입국 4백만명, 관광수입 42억달러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에도 불구, 일부에서는 교통·관광체계 혼란, 숙박시설, 서비스不備 등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활성화돼야 하는가. 지난 2개월간의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 평가와 관광산업의 실태, 관련당국자의 향후 추진계획, 업계쪽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본다.

〈편집자 註〉

추진 현황

觀光客 증가세 뚜렷, 4百만 유치 무난

교통체계 개선·出入國절차 간소화·宿泊시설 완비 추진

올들어 지난 2월19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40만4천2백50명(교통부 잠정집계). 지난해에 비해 15.3%가 늘어난 수치이다.

42億弗 목표 달성할 듯

관광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나 1월중 수입은 지난해보다 9.7% 늘어난 2억3천4백52만9천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증가추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4백만명 관광객 유치와 42억달러 관광수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로 총리주재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정부실무위원회, '한국방문의 해' 지원단(교통부), 해외홍보실무협의회(공보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방문의 해' 사업으로 눈축제(1월) 국제연날리기대회(2월25~27일) 등 국제적인 행사들이 열린 것을 비롯 앞으로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총회행사 등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서울과 지방에서 다채롭게 개최된다.

금년에 열리는 행사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지원하는 국제요리축제, 4계절축제(눈축제, 꽃축제, 단풍제 등)를 비롯한 32개와 서울定都 6백년사업 38개, 백제문화제 달구벌축제 등 전국 市·道주관의 사업 2백여개, 국악의 해 사업 58개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1백77개의 특색있는 관광코스와 60개의 쇼핑상품도 개발돼 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외래관광객 2천7백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불편한 사항으로 ▲언어소통 ▲교통혼잡 ▲택시기사 ▲상품강매 ▲음식점불결 ▲관광정보입수곤란 ▲야간유흥 ▲종사원의 팁요구 등이 손꼽혔다.

이가운데 교통·관광체계의 혼잡은 외래관광객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모범택시 운영(92.12)에 이어 ▲관광안내물제작 확대 ▲도로·관광안내판 개선 ▲승차권예약제 도입 ▲관광안내소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텔객실부족으로 인한 외래관광객의 숙박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급여관(3백30개, 1만1천실) 등을 선정한 바 있고 ▲업계 지원대책으로 ▲외래관광객 관광호텔 객실요금 부가세영세율 적용(94.1) ▲관광산업 산업자금지원(94년부터) ▲관광호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완화(94.2) 등 관광업계에 대한 각종규제완화 및 지원 등을 통해 관광수용태세를 대폭 정비했다.

각종 규제완화 적극 추진

이밖에도 정부는 관광객유치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인·홍콩거주 7년이상자 노비자(NoVisa) 입국 ▲출입국절차 간소화(94.3)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두달간의 '한국방문의 해' 사업운영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규제완화 ▲요식업소 위생개선 및 우리음식의 국제화 ▲관광쇼핑자원 발굴 ▲지역·향토이벤트의 관광자원화 ▲서비스제고 등 관광여건 활성화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공관을 통한 유치활동 ▲각 市·道 자매도시(해외 1백28개 도시) 대상 홍보 ▲예술단 순회공연 등 범국가적 역량활용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광종사자의 서비스, 물가, 관광상품의 질, 국민의 친절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뿐 아니라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가 필수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鄭敏洙기자〉

현주소

2일 오후 3시경, 김포공항 국제선 제2청사 입국장 모습이 달라졌다.

평소같으면 승객들로 혼잡을 이루었던 세관검사장이 보다 넓어졌고 통관시간도 대폭 단축되었다.

그러나 청사 안팎에 걸려있는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무색하리만큼 마구 주·정차된 차량과 입·출국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여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택시이용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최근 인상된 택시요금 조견표에는 영어 안내말 하나 없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돌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관광협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국 호텔수는 4백42개로 객실수는 4만4천여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外來관광객 60~70%가 서울에만 머물다 떠나는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내 특급호텔은 26개로 6천8백31개 객실을 보유, 객실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측은 올 4백만 外來관광객 유치목표와 연계, 약 1만3천여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고급여관 3백30개소(1만1천객실)와

가이드책자 発

민박 5백가구를 선정, 가이드책자 발간 등을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한편 국내외 관광객 여행편의 제공의 일환 들이 관광안내소를 쉽게 있도록 관광안내표지의 제작했다.

이번 새로이 제작된 표지는 국제적으로 인 '?'(물음표)에 한문과 표기하여 동·서양인

정부 대책

'觀光한국'의 획기적 전환 기대

정부는 '88서울올림픽 이후 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외래관광객의 입국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서울정도 6백년이 되는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전세계에 선포하고, 동 사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94 한국방문의 해' 붐 조성을 위해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홍보 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 범 정부적으로 해외홍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관광공사와 업계가 공동으로 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와 기존 엑스포 홍보시설을 활용하는 등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관광 수용태세와 관광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일본인에 대한 無査證입국 허용, 세관검사를 비롯한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관광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 일련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불편없이 안락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교통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음식점을 비롯한 관광시설과 관광지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위생청결 유지, 우리의 특색있는 쇼핑자원의 개발 등의 분야 력을 경주해 나

이러한 일련의 으로 추진될 때 획기적인 전환점 한다.

무엇보다도 국자 수가 크게 실은 이러한 맥 다행스럽고 고무

위해서는 국민의 물론 정부와 관 력이 총체적으로 것임을 다시 한 관 공동의 노력 할 것이다.

鄭
〈교통부

준비 잘 되고 있나'

적 행사로 치뤄야

◇정부는 서울 定都 6백년이 되는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언하고 올해를 기점으로 오는 2천년대엔 관광수입 1백억달러 달성으로 선진관광 10大國에 진입하기 위한 초석을 굳게 다지기로 했다. 〈裵權瀅기자〉

刊·표지판 設置작업 한창

이에 대한
통해 관광객
있다.
객들에 대한
으로 여행객
찾아볼 수
표준편람을

관 관광안내
지도가 높은
영문을 함께
모두가 알아

보기 쉽게 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한 日本 관광객의 ▲계약보다 비싼 식사대 ▲과다한 팁요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일부 그릇된 한국관광 인식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사측은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73개 市郡區와 자매결연을 맺은 1백28개 외국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축제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수출산업으로 호텔 관광단지 등 기본적인 관광시설이 태부족인데다 인적·물적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적어 세계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薛東圭과장은 한국관광산업의 실태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자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전국민의 관광안내원화에 민·관 모두가 합심할 때"라고 지적했다.

〈洪永模기자〉

에서도 지속적인 노
갈 것이다.
의 노력들이 성공적
한국관광 발전의
이 될 것이라 확신

최근 외래관광객 입
증가하고 있는 사
라에서 볼 때 매우
부적인 현상이라 하
겠다.

한국방문의 해
가 성공을 거두기
의 적극적인 참여는
광업계의 의지와 노
교감될 때 가능한
번 인식하고, 민·
을 배가해 나가야

鍾 煥
관광국장〉

PATA총회

한국관광의 국제적 位相 높일 계기

觀光올림픽으로 일컬어지는 '94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한국총회가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계70여개국 4천여명의 대표 및 관광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될 이번 총회는 ▲연차총회(4월17~21일·서울) 외에도 ▲국제관광 교역전(4월11~14일·경주) ▲세계지부회의(4월14~18일·서울) 등 3大행사를 잇따라 갖는다.

지난 65년, 79년에 이어 3번째 개최하게 된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 제무대에서 한국관광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광收支 黑字기조 회복, 이외에도 올림픽 성공적 개최이후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한국의 位相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 PATA準備委(위원장 池蓮泰한국관광공사 사장)를 구성,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차총회에는 죠지·부시 前 美國대통령이 참석, '未來를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외국인이 본 한국관광

A. J. 팀블릭 〈英 바클레이즈은행 한국지점장〉

4계절 조화·海岸線 세계최고… 관광資源 천국

한국에 끌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美洲나 유럽이 아닌 아시아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는 유럽인의 시각에서 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국에 대한 매력의 명세표를 거론한다면 다른 아시아지역과는 두드러진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계절의 다양함을 들 수 있다. 관광객의 천국이라고들 하는 동남아시아와 다른 한국의 독특함이다.

한국의 봄과 가을은 매우 희귀하고 특별해서 맑은 공기와 온화한 기온으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시골은 산이 많고 수천년의 침식작용으로 산봉우리의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과 가파름으로 인해 마치 한폭의 훌륭한 그림을 보는 것과 같다.

한국의 도서벽지들은 매우 매력적이다. 멀리 떨어져 있고 안내지도가 부족하여 가기 힘든 점은 있다.

그러나 관광객은 은밀하고 아름다운 장소와 평화롭고 고요한 곳을 찾기 위해 좀더 특별한 수고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은 해안선이다. 바위가 돌출되어 있는 동해안의 포구와 항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반도의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출입통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해안과 남서해안의 해역은 요트와 수상스포츠 관광객들의 천국이 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에서의 관광은 문화의 중심지로 외국인의 눈길과 관심사기에 부족함이 없이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전통양식의 고궁관광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94한국방문의 해'는 현실적인 것이다.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과 많은 볼거리가 있다.

한국이 관광산업에 대한 훌륭한 노하우가 없다면 이에 대한 질을 높여 외국 여행객들에게 친절하고 우애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한다.

業界에서 본 관광행정

韓明錫 〈일반여행업협회 회장〉

관광산업 무한한 가능성 잠재… 정책적 投資 필요

얼마전 金대통령이 관광업계대표들을 면접하는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수출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육성지원하겠다"고 언명한 일이 있다.

이같은 대통령의 결심은 관광산업이 우리나라 단일산업으로서 그 부가가치면에서나 외화가득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선진외국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힘을 넣어 키우겠다는 의지표시로 받아진다.

관광산업의 외화가득은 그것만으로도 국가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할 뿐더러 민간교류를 통한 국위선양이란 측면에서도 외교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세계의 관광산업의 외형이 2조5천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도 40억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는 반면 정책적으로나 민간사업측면에서 많은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

5천년 역사의 유적만을 내세워서는 모자란다. 더 동적이고 특성있는 관광지로 가꿔 나가야 한다.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공급을 위한 각종 행정규제가 정리되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관광산업의 진흥은 바야흐로 지방화시대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직결되는 일이다.

이제 서울이 세계공항의 주요행선지로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항공망이 완성되면 한국으로의 접근성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지는 시대를 맞게된다.

2천년대에 1천만명의 외래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해도 지금의 부족한 관광숙박시설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나 동남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매년 20~30%씩 이런 호텔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우리는 뒷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94년이 '한국방문의 해'로서 당해연도의 목표를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백년대계로서 2천년대를 생각하는 관광진흥의 元年으로서 대전환의 해가 되었으면 한다.

국정여론

○…… 최근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일부 장르를 제외하고 일본의 대중문화가 이미 국내에 유입돼 있는 상태이므로 즉시 개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문화 침투로 인해 우리 정서가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개방 반대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우리 문화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면서 일본의 고급대중문화를 도입하자는 선별수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만약 개방이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국제화·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3·1절 제75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그리고 金대통령의 訪日을 앞둔 시점에서 각계 인사들로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註〉 ……○

단계적·선별 개방 바람직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에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만을 무기한으로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대중문화는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과의 합작영화제작, 국제행사에서의 일본어 가창을 허용한다.

그다음으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양질의 대중문화를 선별적으로 가려 들여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다 중요한 일은 취약해진 우리 영상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기르는데에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국민의 높은 문화의식이 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개방후에도 우리 문화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金東虎〈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폐쇄보다 고급문화 개방쪽으로

일본문화 개방에 관해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전부터 많은 관심이 있어왔다.

일본문화는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우리 한국인에게 사고방식 행동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불량한 일본만화와 음반을 막기 위해 태워버리는 등 많이 침투되어 나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폐쇄정책만 쓸 수는 없다. 차제에 고급문화 쪽의 개방으로 청소년들이 일본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안목과 힘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문화의 자생력도 키워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수된 것이 확연하고 일본이라는 국호는 신라통일을 이룬 뒤에 아침의 해를 숭상하는 우리를 흉내내 만들었다고 한다.

이점을 잊지말고 세계화의 문화에 우리의 사고와 전통행동양식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 한다.

朴正姬〈서울Y WCA 회장〉

수용여부 시민판단에 맡기도록

일본문화의 개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교류되지 않는게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가령 일본문화예술의 경우 영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장르가 우리나라에 상륙한지 오래라는 느낌이다.

패션에서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외국문화예술을 수용하는 쪽의 자세·질에 있다고 본다.

정책당국이나 일반시민이 수용할만한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저질 문화예술을 흡수하려는 경향때문에 특히 일본문화예술의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수용여부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믿기때문에 일본문화의 개방에도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盧政善〈연합통신 부국장겸 방송뉴스부장〉

今週의 주제

日本 대중문화 개방

各界의견〈도착順〉

'대중문화보호법' 제정 필요

일본 대중문화, 특히 만화에 관한 한 우리의 현실은 마치 유리가 다 깨진 온실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에서 떨고 있느냐, 나가서 추위와 싸워 자생력을 기르느냐의 차이이며, 개방은 시기의 문제지 찬반의 논쟁 차원은 이미 떠난 시점이라고 본다.

문제는 온실밖으로 나가기 전에 추위를 막을 외투를 껴 입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만화뿐 아니라 모든 외국만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제화하는 법제화이다.

이는 언론자유, 출판자유의 차원에 앞서 우리 문화, 우리 정서를 보호한다는 주권적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

불법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일본만화를 일원화된 창구로 흡수하여 유해한 독소를 제거,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물량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만화뿐 아니라 모든 대중예술분야에 적용되므로 이를 위한 '대중문화보호법' 제정을 강력히 제청한다.

李元馥〈덕성여대 교수·만화가〉

개방 불가피…정서위축 극복해야

지금 당장 일본과 문화교류한다 하여도 우리 음악계의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 정서의 침투와 이로 인한 우리 정서의 위축이다.

특히 대중음악은 우리 정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음악은 일본의 영향을 지우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대중음악 작곡이나 편곡자 즉 공급자들이 의도적으로 일본의 그것을 표절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그들의 감각은 이미 일본대중음악에 젖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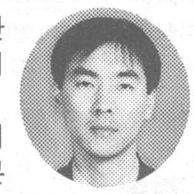
물론 우리의 정서를 고집하는 작편곡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크게 본다면 우리의 대중음악은, 자생적인 일본대중음악이나 미국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일본대중음악의 그 어느한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면 개방을 차단함으로써 커지는 막연한 동경과 지나친 호기심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다.

李鐘九〈한양대 音大 교수〉

합작영화제작부터 착수를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30년간 일본영화수입논의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지금까지는 논의가 성숙되지 못하고 정부쪽에서 여론을 떠본다거나 매스컴에서는 소박단순한 민족감정을 자극시키는 일이 반복됐었다.

이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 단계적으로 일본영화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예를들면 합작영화제작기간을 거쳐, 일본고전영화의 선별수입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당국은 일본영화 개방을 수동·수비적으로만 보지말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영화는 현재 약화상태(국내점유 35%)에 있다. 상호교류를 통해 한국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전세계에 일본영화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 문체부의 입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康漢燮〈서울예전 교수·영화학〉

교류활성화로 문화경쟁력 길러야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에 찬성한다.

오랜동안 대중문화에 종사해 온 입장에서 '세계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음악분야는 일본음악이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 음악도 일본에 소개돼 서로 개방된 상태이다.

대중음악인들은 개방문제에 대한 논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력을 배양하고 같이 무대에 서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음악의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중문화개방으로 일본의 문화잠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음악의 국제화에 진력해야 할 때다.

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日 대중문화의 개방이 일부 기업인이나 장사속에 밝은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광한〈팝 칼럼니스트〉

나라 망치는 일…개방 절대불가

과거 35년간 일본이 우리에게 안겨준 상처는 너무도 엄청나다.

그러나 일본은 오늘날까지 단 한번의 사죄가 없었으며 단지 지난해 10월 호소카와 일본수상이 방한, 고작 陳謝한다는 말한마디만을 남겼을 뿐이다.

이와 같이 교활한 일본과 정식문화교역 관계를 맺는다해도 양질의 문화를 우리에게 줄리는 만무하다.

오렌지族의 일본 사무라이風 머리스타일, 압구정동 거리에 물결치는 로바다야키 등에서 보듯 상업성으로 똘똘뭉쳐진 그들의 저질문화만이 우리에게 옮겨졌을 따름이다.

이같은 일본문화 침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의 민족정기를 말살시키는 동시에 정치·경제·사회를 일본풍으로 좀먹게하는 첩경이다.

따라서 일본문화 개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며 국제화·개방화를 빌미로 일본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다.

金勝坤〈광복회장〉

환경·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지혜 모을 때

지역이기주의·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90년대에 접어 들면서 '님비'(Not In my Backyard)란 용어가 언론에 심심찮게 나타났으며 이제는 제법 껄끄러움없이 일반화되고 있다.

정신병원, 고아원,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 및 사회복지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부현상을 지역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라고 흔히들 해석한다.

정확한 용어 해석인지의 여부는 좀더 시간을 갖고 전문적인 사회심리학자 및 국어학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낱말 사용만으로 문제해결에 보탬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용어와 관련되어진 사회현상으로 심한 아픔을 겪고 있고, 다가올 앞날에도 오랫동안 이러한 증후때문에 심한 시달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 및 변화에는 언제나 고통과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나, 그러한 고통과 혼란을 짧은 시간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님비'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솔직한 진단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환경과 복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집 안뜰에는 안된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이기주의의 특이한 형태로 간단히 색칠하고 미라 단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파악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은 그렇다. 특정지역주민이 전체 공동체의 존속 및 행복을 위해 평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상적인 위험과 희생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요구는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사회적 형평을 요구하고 자기 몫을 주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 측면이 엿보인다.

물론 대부분의 사례가 전체 사회의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 모두 자성해야 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앞 뒤 가리지 않고 공업단지를 유치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매립지나 폐수처리장 건설 등은 까마득히 모른 체하는 정책입안이 우선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지역간 힘겨루기로 도시개발이나 산업시설입지가 결정되고 여기에 필수적인 정신병원, 공동묘지의 위치가 지역세력에 의해 좌우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전의식에 발 맞추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사람과 돈, 그리고 기술개발에 정책열정을 쏟았는가.

무턱대고 나무라기 전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지역발전을 앞세운 개인적 욕망, 힘 겨루기에서 패배한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지역체면문제, 생산력이 집중되는 지역은 따로 있고 산업사회가 내뱉고 있는 쓰레기만을 뒤치닥거리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생활환경 장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뒤섞여져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사회적인 아픔과 혼란을 되도록 빠른 기간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종아리를 먼저 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尹 瑞 成
〈환경처 폐기물자원국장〉

공무餘話

官街

현장 목소리에 비중

○…金泳三대통령의 지방순시가 無泊의 강행군에 현장중심으로 이뤄져 눈길.

특히 의례적인 업무보고시간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 농민 등과의 대화는 늘려 현장의 목소리에 비중을 둔 점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

金대통령은 이같은 현장시찰위주의 시·도 순시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자랑스런 신한국을 위해 함께 뛸 것을 당부.

'사무관회의' 큰 효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의 사무관들이 매주 한차례씩 '사무관반짝회의'를 갖고 행정쇄신에 발벗고 나서 화제.

'사무관반짝회의'란 실제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

지금까지 이 회의에서는 청사내 판매창구가 없어 민원인들이 멀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까지 가서 사와야 했던 수입인지를 청내 수납창구에서 판매토록 하는 것 등 행정개선방안이 백출.

또 1주일 이상 걸리던 민원서류처리가 당일 혹은 2~3일로 대폭 줄어드는등 큰 효과.

노사분규 격감 전망

○…노동부가 지난 5년동안의 연초 노사분규건수와 연간 분규건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노사분규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주목.

노동부는 이 분석결과에서 연간 분규건수는 1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연초 46일간의 분규건수와 정비례, 연초 분규건수가 감소할수록 연간 분규건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노동부는 이에 따라 단3건에 불과했던 올해 연초 분규건수로 미루어 연간분규건수도 지난해의 1백44건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측.

중앙부처 바둑대회

○…총무처는 5·6일 양일간 정부 제1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바둑대회를 개최.

국무총리실 등 37개 기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부처간 친선도모를 위해 마련된 것.

대통령 지방순시, 크게 달라져

仁川 海港廳 사무관들 行政쇄신에 앞장

'친절봉사 전국 1위' 영월 수주지서

話題

「주민의 친근한 이웃」 전원 1계급 特進 영예

주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함께 하는 경찰상을 적극 실천, 직원 전원이 1계급씩 특진의 영예를 누리게 된 지서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江原道 寧越경찰서의 水周지서(영월군 수주면 도원1리, 지서장 李振雨경사)가 그곳.

수주지서는 새정부 들어 경찰이 친절봉사의 새 경찰像 정립을 위해 지난 한해동안 실시한 '친절봉사 종합평가'에서, 전국의 지·파출소 가운데 가장 친절한 곳으로 뽑혔다.

매년 3~40만명을 헤아리는 피서객들을 위해 약수터를 개발하고, 인근 원주시 명륜동의 아파트주민들과 자매결연,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펴 주민소득증대에 앞장서는 등 '찾아나서는 봉사'가 돋보였다는 것이 중평.

이와 함께 수주지서는 2차에 걸친 예비평가와 전화·대민응대, 주민편의제공, 설문조사 등 종합적인 친절도를 점검한 합동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찰청은 "친절봉사의 생활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을 마련, 건수보다 실적중심으로 평가했다"며 "수주지서 전직원에게서 주민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민들도 "상받아 마땅한 곳이 받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수주의 소리' 여론함을 설치,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을 비롯 불우청소년돕기, 주민전화방문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꼼꼼히 챙긴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또 지서담장을 없애 주민의 휴식터로 바꾸고 무궁화문고를 설치, 벽지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등 지서가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李振雨경사, 閔龍俊·李漢基경장, 許龍範·柳昌烈순경 등 수주지서 전직원은 "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했을 따름인데 너무 과분한 칭찬을 주시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겸손해 했다.

〈徐光植기자〉

光化門

自生의 힘

요즘들어 중소제조업의 景気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남녘으로부터의 花信이 전해진 지는 벌써 오래이지만 이제 새봄과 함께 중소기업인들의 어깨도 좀 펴지는 듯해서 반갑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다소 유감스러운 점을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景気의 호전이 오로지 외부요인들에 힘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가 이른바 엔高추세에 따른 수출신장이다. 일본엔貨의 절상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더 계속될 전망이다. 호소카와총리가 섣불리 미국측 압력, 対美수입을 실증적으로 늘리라는 클린턴대통령 요구에 '노'라고 말했다가 지금 보복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 엔高도 그 일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머지않아 끝나리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궁지에 몰린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굴복, 정치적 협상의 실마리가 곧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의 요인은 요즘 다시 고개를 드는 국내 소비풍조이다.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업체들도 여기에 한 몫을 단단히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고보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누리는 호황은 조만간 또 속절없이 스러져 갈 것이 틀림없다.

결국 사람이고 기업들이고간에 '自生'의 힘이 중요하다. 스스로 존립하고, 또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힘을 끊임없이 축적할 필요가 절실하다.

근자에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축소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들린다. 가령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축소하려는 조치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 등을 두고 '대기업 偏向' 운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이야기이다. 황야의 바람처럼 이미 거세게 밀려들기 시작한 우루과이라운드 태풍속에서 이제 정부의 보호막도 서서히 걷혀가야 한다.

중소기업들 스스로의 자생력, 곧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 등이 그 생존의 관건으로 또 다시 무겁게 떠오르고 있다.

다음주 行事메모

외 무 부	이온일리에스쿠 루마니아대통령 방한 (9~11일)
재 무 부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장관조찬간담회 / 롯데호텔 36층 (9일)
건 설 부	'94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을 위한 지도점검 / 12개 市·道 (7~19일)
환 경 처	95년도 환경기술개발 연구조정위원회 / 회의실 (10일)
	G-7 프로젝트 주관 책임자 회의 (11일)
국가보훈처	島山 안창호선생 제56주기 추모식 / 서울 도산공원 (10일)

지난주의 主要發表

경제기획원	2월중 물가동향 (2일)
	국가발전과 경제의식 (KDI주관 정책토론 자료) (3일)
외 무 부	헤브론사태에 대한 외무부 대변인 논평 (2월28일)
재 무 부	94년 3월부터 달라지는 외국인 투자제도 (1일)
문화체육부	제1회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 개최 (4일)
건 설 부	'94 건설부 시행 자격시험계획 (7일)
보건사회부	노인 무료건강진단사업 실시 (3일)
총 무 처	'94 중앙행정기관 바둑대회 (5~6일)
환 경 처	4대강 수질오염 현황 (2월27일)
산 림 청	산림의 타용도 전용시 대체조림비 면제대상 대폭 확대 (1일)

※ 자세한 내용은 각부처 공보관실로 문의바랍니다.

정부간행물

▲간행물명 (판형·쪽수) / 문의처 (전화) : 내용順

총무처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4·6배판·198쪽) / 행정전산과 (720-4951) :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의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조문별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韓國獨立運動家의 眞相** (신국판·154쪽) / 자료관리과 (780-9808) : 중국상해 영문대륙보 기자 내다니엘씨가 1919년 1개월간 체류하면서 3·1운동의 진상을 확인한뒤 외국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 당초 영문으로 작성된 것을 우리말로 옮겼다.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 (Ⅰ~Ⅳ) - 1993** (신국판·각157, 124, 152, 103쪽) / 통계조사국 인구통계과 (222-1862) : 1990년 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구규모와 구조, 지역간 인구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등으로 분류한 4권의 보고서.

개혁으로 뿌린 씨앗 국제화로 열매맺자

「국가경쟁력 강화」 표어

'국악의 해' 사업계획 확정 발표

每月 정기공연등 전국민 國樂보급에 앞장

방송시간 확대·내소리사랑 공연 등 행사 다채로와

문화체육부는 올해를 '국악의 해'로 정하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예술을 발굴 보급하는 등 국악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국악의 해' 조직위원회 (위원장 黃秉冀)는 최근 올해 국악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연사업

창작 창무극 발표회, 환경기금 마련을 위한 '새봄맞이 국악대축제', 전국 국악관현악단 축제, 매월 정기민요공연, 남북전통공연예술교류 추진, 통일성취 굿모음, '94 일요명인맹창 상설공연, 5대 창극 전국순회공연, 무형문화재 합동공연, 국혼식재연, 국악의 해 기념국악제, 창작 국악동요제, 서울 600년 고궁궁중음악 축제, 서울 통일문화장터, 우수창극초청공연,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등 24건.

▲ 학술·출판사업

국악관계자료발굴, 국악인명사전, 국악문헌자료집, 국악의 해 기념 학술대회등 7건.

▲ 개발·보급사업

전국민 국악보급사업 (국악보급을 위한 짝짓기 프로그램) 전통소리·춤배우기 및 어린이 국악교실운영, 내소리사랑 순회공연, 국악 CD-ROM제작보급 등 6건.

▲ 홍보사업

국악의 해 이미지 통일화 작업, 국악의 해 기록홍보영화 홍보책자, 방송시간확대등 총5건.

▲ 국제사업

서울국제민족음악제, 미주지역 한국페스티발, 亞·太 민족음악학회 창립총회 및 연주회 등 5건.

圖表로 본 國政

사 회

▲고용·노사

노동력 수급 및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는 80년 14,431천명에서 92년 19,384천명으로 34.3% 증가함.
- 실업률은 80년의 5.2%에서 92년에 2.4%로 낮아졌음.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의 출산율 감소와 사회활동기회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됨.

(단위 : %)

구 분	경제활동 참가율	남	여	성별경제활동 참가율비
1980	59.0	76.4	42.8	56.0
1985	56.6	72.3	41.9	57.9
1990	60.0	73.9	47.0	63.6
1992	60.9	75.3	47.3	62.7

주요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 그러나 아직 미국, 일본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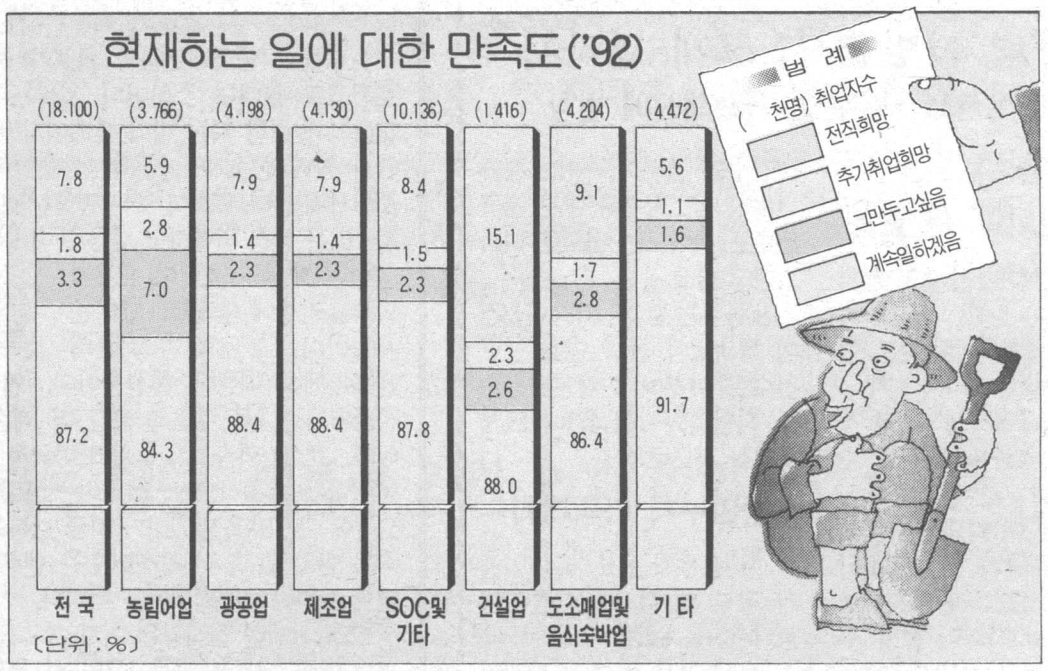
구 분	연 도	경제활동참가율		
		계	남	여
한 국	1992	60.9	75.3	47.3
일 본	1992	64.0	78.0	50.7
미 국	1992	63.8	72.2	56.0
필리핀	1992	65.0	82.6	47.8

주요국의 취업구조

- 외국과 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그중 독일은 광공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단위 : %)

구 분	연 도	농림·어업	광공업	SOC
한 국	1992	16.0	25.5	58.5
일 본	1992	6.4	24.5	69.2
미 국	1992	2.9	17.5	79.6
독 일	1991	3.5	32.4	64.1



〈자료 : 통계청〉